

전주시, '설 연휴 종합대책' 가동

코로나19 방역 강화·교통·환경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 위한 종합상황실 등 운영

전주시는 설 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고 교통·환경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설 연휴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설 연휴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연장된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 강화 ▲시민안전 편의증진 ▲민생경제 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시는 자체 운영하는 봉안시설인 봉안당과 봉안원을 설 연휴기간 전면 폐쇄하고 6일부터 10일까지, 15일부터 21일까지 하루 500명 한도로 사전 예약을 받아 방문을 허용하기로 했다. 효지공원묘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개방되며 출입구 6곳에는 발열체크 및 인원 통제 역할을 맡

을 방역인력이 배치된다. 이와 별도로 추모객 분산을 위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ehaneul.go.kr)를 통한 온라인 추모 서비스도 제공된다.

시는 또 설 연휴기간에 코로나19 비상대응반을 비롯한 보건소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과 역학조사반 덕진선별진료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검사대상자 400명 초과 예상 시 확산선별진료소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노인요양시설과 대중교통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방역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추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주 내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한 특별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설 연휴기간동안 많은 관광객

이 예상되는 전주 대표 관광지 한옥마을을 위해 한옥마을 비상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운영과 특별방역 및 현장순찰 통해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교통, 생활쓰레기, 상하수도 등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즉시 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종합상황실과 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 특히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일체점검에도 집중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중소기업 용자지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또 물가인정을 위

해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반을 운영하고 32개의 중점관리 품목에 대해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동시에 전통신장 장보기 행사 등도 분산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불우이웃돕기 등 저소득층 지원에도 힘쓰기로 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으로 모두가 힘겨운 상황에서 설을 맞이하게 됐다"면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공예품전시관, 설맞이 특별행사

11~14일까지 시민 대상 체험 프로그램·전통놀이 등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코로나로 인해 귀성길이 어려워진 전주시민들을 위해 11일부터 14일까지 설맞이 특별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설맞이 행사는 '봄은 거리두기, 마음은 공예두기'를 통해 코로나를 예방하고 서로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획했다.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체험관 ▲판매관 ▲오목대전통정원 ▲온라인 소풍물(명인물)에서 진행되며 전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체험관은 설명절 특별 체험프로그램으로 전통연 만들기, 전통제기 만들기, 채상장 컵받침 만들기가 진행된다. 특히, '제기만들기체험'은 현장에서 진행되는 SNS 공유 이벤트에 참여한 선착순 30명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판매관은 현장 구매자에 한해 만원 상당의 '한지 북 카드'를 증정한다. 북 카드는 엽서형태로 제작돼 마음의 메시지를 담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했다. 오목대전통정원에서는 전통놀이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제기차기, 투호 던지기, 윷놀이 그리고 국궁 활쏘기 등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온라인숍(www.jsho.or.kr)을 통해 5만원 이상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북카드와 함께 보자기 포장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해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했다.

전주 시민을 위해 마련된 행사는 주소지가 기록된 신분증을 통해 전주 시민임을 입증하면 된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김선태 위장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운동이 설 연휴기간에도 이어져야 한다"면서 "거리 두기에 가까이 동참하여 고향 방문을 미룬 전주 시민들이 이번 설 연휴 기간 공예와 벗하며 마음을 위안을 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기자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 박현준 씨는 1일 '발 굽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사업에 써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전주시에 기탁했다.

울산에서 날아온 '엄마의 밥상' 후원

초등학교 교사 박현준 씨, 성금 1000만원 전주시에 기탁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침밥을 굽는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하는 전주시 '엄마의 밥상' 사업을 후원하고 나섰다.

박현준 씨(42세)는 1일 '발 굽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사업에 써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전주시에 기탁했다.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박 교사는 제대로 된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 우려 아동들을 돕고자 먼 길을 달려와 후원

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매일 아침 300여 명의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게 밥과 국, 3찬이 들어 있는 도시락이 배달되는 사업에 활용된다.

박 교사는 "아내, 자녀와 함께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자 이번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기자



전주푸드 농민가공실에서 만든 푸딩이 HACCP 인증을 받았다.

전주푸드 농민가공실 생산 푸딩 'HACCP 인증'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 신뢰도·판매경쟁력 향상 기대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는 전주푸드 농민가공실에서 만든 푸딩이 HACCP 인증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HACCP은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원료 제조 및 가공, 조리, 유통 등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혼입되거나 오염될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집중 관리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다.

시는 전주푸드 농민가공실에서 제조·생산된 푸딩이 HACCP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줘 판매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품으로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주푸드 농민가공실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에는 반찬류와 과채주스, 잼 등 다양하다.

황권주 소장은 "이번 HACCP 인증으로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농산물 가공사업을 활성화해 6차산업도 발달시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농촌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전주푸드 농민가공실에서 생산하는 다른 유형의 상품도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돕는다

전주시보건소, 임신 전~출산 후 양육까지 상황별 맞춤형 지원 추진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임신 전부터 출산 후 양육에 이르기까지 상황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시는 혼인 전 예비부부와 임신을 앞둔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2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혈액 검사 등 24종의 검사와 풍진 예방접종이 무료로 제공된다. 시는 또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비도 지원한다. 체외수정 시술비의 경우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인공수정 시술비의 경우 1회당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시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각 시기별로 필요한 영양제도 지원한다. 엽산제는 임신 진단 시부터 12주까지 최대 3개월분, 철분제는 16주 이후부터 분만 시까지 최대 6개월 분을 제공한다. 여기에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 의료기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표준모자보건수첩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는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중위소득 120% 이하의 출산가정의 경우 건강관리사가 방문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사는 산모의 영양관리와 산후체조, 산모와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감염 예방 관리 등을 돕는다. 또 분만 후 2~8주 사이의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유증 선별검사가 진행되며, 6개월 이내 출산한 산모에게는 1인당 최대 20만원 한도로 산후치료 관련 진찰료와 주사료, 수술료, 검사료 등도 지원된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급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영유아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도 지원된다.

사업별 지원 자격이나 지원 방법,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63-281-6281)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임신 전부터 출산 후 양육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